

창간5주년 기념호를 내며

정진숙

「출판저널」 발행인

「출판저널」이 이번호로 창간 5주년을 맞았다. 1987년 7월 20일 “도서문화의 확장과 충실화를 위한 公論誌”라는 기치를 내걸며 첫호를 선보인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5년동안 「출판저널」은 출판계 안팎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책의 문화’를 드높이고 ‘책읽는 사회’를 실현코자 하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같은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결코 서두름 없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거니와, 출판계 안팎의 격려와 지원 또한 변함없이 지속될 것으로 믿는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은 사회적으로나 출판계 내부적으로나 대단한 격변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출판저널」이 창간되던 무렵의 이른바 6.29선언을 필두로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차차 선진화로 진입해가고 있다. 출판계에서도 두드러진 변화들이 많았는데, 첫째 출판사 등록의 자유화로 전국 출판사수가 5천여개로 늘어났고, 연 도서발간 종수는 4만여종에 달할 만큼 출판풍토가 활성화되었다는 점, 둘째 북방외교의 진전과 통일에 대한 욕구로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각종 이념도서와 북한 연구도서의 출판이 활발해졌다는 점, 셋째 국제저작권 조약 가입으로 지적 소유권 사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했으나 해적판 출판국이라는 오명을 씻게 되었다는 점, 넷째 출판경기의 저조 속에서도 백만부를 육박하는 베스트셀러가 속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의 잠재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 다섯째 컴퓨터의 개발과 보급으로 편집·제작의 선진화가 가속되었다는 점, 여섯째 점증하는 출판시장 개방압력으로 출판환경의 변화와 국내 출판업의 체질강화가 초미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중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추세 속에서 과연 「출판저널」이 우리 출판문화를 선도하는 공론지로서 얼마나 제몫을 다했는가 하는 데는 물론 스스로 반성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어쩔 수 없는 능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출판저널」이 지켜온 기본적인 편집의 원칙과 방침은 공론지로서의 위상에 손색이 없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창간사를 통해 이미 천명된 바대로 그것은, 첫째 소개할 가치가 있는 책들은 어떤 형태로든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새 책의 가장 신속하고 철저한 정보지 역할을 한다, 둘째 중요한 책과 덜 중요한 책을 책임질 수 있는 눈으로 가리고 따져 평가함으로써 본격 서평지의 역할을 한다, 셋째 저자와 독자, 출판사간의 상호교류를 최대한 활성화함으로써 독서문화 진작에 기여하는 교양지로서의 몫을 다한다, 넷째 책의 제작과 유통 등에 대한 합리적 경영방법이나 첨단기술을 소개하고 권장함으로써 출판업계의 전문적 안내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출판저널」만의 노력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출판금고의 발간비 지원을 비롯한 출판업계와 독자들의 유 무형의 성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맙고 소중하다. 「출판저널」이 이 5년동안 출판계나 독자들 사이에서 나름의 영향력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이렇듯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어울림과 도움, 그리고 부추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자리를 빌어 「출판저널」의 오늘이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출판저널」은 「출판저널」 종사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창간 5주년을 하나의 매듭으로 삼아,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는 심정으로 「출판저널」 내실화의 각오를 다지면서 더 좋은 지면 더 나은 내용을 위한 분발을 약속드린다.

출판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관기관단체의 지원, 서평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뉴스 2 올 상반기 출판통계 · 외

양케이트 4 “책을 아끼는 분들이 사랑하는 잡지”

출판저널 창간5주년에 바란다

김낙준 / 이기웅 / 김경희 / 허창성 / 정희천

이원홍 / 김정흠 / 이용권 / 신영길 / 김영중

김주복

특별기고 8 공신력있는 ‘저널리즘리뷰’가 아쉽다 — 유재천

매스컴 연구자가 본 한국의 출판저널리즘, 그 현상과 문제

특집 10 책의 미래와 미래의 책

10 뉴미디어시대의 책과 그 문화사적 의미 — 김성곤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14 포스트모던문화의 글쓰기와 저자 — 복거일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18 삶의 양식의 변화와 독서양상 — 이중환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22 환영과 우려 엇갈리나 책은 남는다

종합토론

미래소설 24 마지막 소설가, 구보씨의 10년후? — 주인석

서기 2002년 7월 12일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초점 28 우리나라 전자출판, 어디까지 와 있나

이제 막 걸음마단계 지나 본격적으로 뛰어들 체비

시론 30 대형서점 POS 운용에 문제 많다 — 박전걸

교보문고의 자체 개발 및 시행을 보며 드리는 고언

출판화제 32 책으로 보여주는 한국신문학 백년사

삼성출판박물관 개관 2주년기념 ‘한국신문학특별기획전’

리포트 33 잡지편집에서의 사진과 디자인

제3회 편집디자인세미나 지상중계

문화인물 34 고대사 실상 알리는 자료의 보고

이달의 문화인물 일연과 그의 「삼국유사」

세계의 책 36 스위스출신 여행자의 체험적 일본론

니콜라 부비에의 「일본연대기」

38 신간안내

46 200자 안내

48 출판저널 총목차

54 신간목록

60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

표지그래픽 / 김유라